

권기준 문경공 종손과 권오한 목사 대종회 방문

권기준(36世) 종무위원과 제주도에서 권오한(35世) 목사가 대종회를 방문하여 권영창 회장과 대담했다. 권영창 회장은 안동권씨 1100주년을 기념하는 사업을 기획하고 있다. 농촌재사 앞에 유물기록관도 건립하고, 시조 동상도 세우고, 표준영정도 봉안하고, 현수운동을 통해 나무심기도 할 계획이다. 벌써 경주에서 권원수 이사가 이팝나무 100수를 기증하기로 약속했고 저 또한 소나무 50수를 기증할 예정이다. 기념식수를 하면 이름표를 달아주고, 찬조금과 헌성금을 내면 헌성비에 이름을 새겨주려고 한다. 또 종보도 1만부까지 회원을 확대하려고 한다. 안동권씨 1100주년 사업계획서가 수립되는 대로 전국을 순회하면서 지역 족친들과 간담회도 가질 생각이다. 앞으로 대종회 사업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다고 말했다.



권오한 목사, 권영창 회장, 권기준 문경공 종손(왼쪽부터)

이에 권오한 목사는 100만 안동권문의 대종회장으로 추대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앞으로 안동권문의 화합과 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라고 말했다. 권기준 문경공 권제(權繼, 추밀공파, 17世) 종손은 지난번 문경공 자료관 개관식을 신문에 잘 보도해 주셔서 고맙다. 문경공은 양촌 권근의 둘째 아드님이다. 묘소가 음성에 있는데 문경공 3대 묘소도 유명하다. 한번 음성에 오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대화 중에 권영창 편집국장은 권기준 종무위원은 영풍군(永豊君) 권길(權吉, 22世, 1541~1592) 선조의 종손이다. 영풍군은 임진왜란 때 상주판관이었는데 상주에서 전투하다 순국했다. 그래서 조정에서 충렬사를 지어 주벽으로 모셨는데 대원군 때 훼손되는 우여곡절을

경다 현대에 들어와 상주 유림들이 영풍군을 모신 충렬사와 과제(果齋) 윤섭(尹漣, 1561~1592) 등의 위패를 모신 종의단 두 곳에 모셔져 있던 분들을 합사해서 위패를 모셨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주벽이 바뀌고 말았다. 그 기준은 사후에 내린 증직이었다고 한다. 종사관 윤섭은 영의정으로 증직 받았고, 영풍군은 이조판서로 증직 되었다. 그러나 임진왜란 당시에는 순변사로 도망가고 상주목사로 달아난 상황이라서 실질적인 리더는 상주판관 권길이었다. 영풍군이 품계도 더 높고, 나이도 20살이나 차이 난다. 더구나 조선은 삼강오륜을 중시한 유교국가였다고 설명을 덧붙였다.

권오한 목사는 이런 역사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종회에서 학술대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바로 잡아나가야 한다. 안동권문의 발전을 위해 선한 욕심을 내는 것은 좋다고 생각한다 말했다. 또 각 지방을 순회하며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하니 제주도에도 한 번 방문해서 제주도 족친들과도 만남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권영창 편집국장

권정택 상임위원, 행주서원 신임 원장 취임 고유례 봉행



권정택 원장(앞줄 오른쪽에서 세번째)

권정택 상임위원이 7월 2일 오전 11시 행주서원 기공사에서 강홍강 고양향교 전교, 고부미 고양시의회 의원, 김충신 원임 유도회장, 정영애 여성유도회장 등 많은 유림이 참석한 가운데 신임 원장 취임 고유례를 봉행했다. 고유례 집례는 정대채 용강서원장, 알자는 이성종 고양향교 사무국장, 봉향은 이종원 수석, 봉로는 이

유태 도유사, 사준(司鑄) 향례(享禮) 때에 제주(祭酒) 단지를 맡아보던 사립)은 한영애 강사, 관세(盥洗)는 권은경 강사로 각각 분정했다. 권정택 원장은 인사말에서 "전체 유림의 단합과 행주서원의 지속적인 성장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권영완 편집국장

권중달 종사연구위원회 위원장 임명

권영창 회장은 7월 20일 대종회에서 권중달 종사연구위원회 위원장에게 선임장을 전달하며, 앞으로 종사연구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대종회와 안동권문의 종사 발전에 힘써달라고 부탁했다. 권중달 위원장은 지난 제17~18대 권해옥 회장 재임 시에도 종사연구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한 바 있다. 권영완 편집국장



청장년중흥위원회 권순용 상임부회장 임명

권영창 회장은 7월 20일 대종회에서 권순용 청장년중흥위원회 상임부회장에게 선임장을 전달했다. 청장년중흥위원회는 이번에 신설된 기구로 전국 청장년체육대회와 효자효부 찾기, 출산장려 등의 업무를 추진하게 된다. 청장년중흥위원회 위원장은 권영상 대종회 상임부회장이다. 권영완 편집국장



동정



▲ 권두현 경기도행정동우회장이 제3대 지방행정동우회 중앙회 회장으로 만장일치 추대되어 19일 취임했다. 권 회장은 정통 지방행정 관료로서 첫 지방 공무원 출신이 중앙회 회장이 된 것이다. 권 회장은 "행정동우회가 지난 2020년 3월 31일 명실상부 법정단체로 전환돼 위상이 높아진 만큼 이에 걸맞게 책무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권 회장은 남양주·파주 지역에서 단체장을 지내고 경기도 환경국장, 자치행정국장, 성남·안양·부천시 부시장, 안산시청 권한대행, 도 행정2부지사 등을 두루 역임한 지방행정의 달인이다. 공식사회에서 명예퇴직된 뒤에는 새마을운동중앙회 사무총장으로 활동했으며 경기도행정동우회 회장을 4연임하기도 했다. 임기는 2년이다.

권 회장은 "배터리산업을 반도체, 디스플레이를 잇는 국가 핵심 전략 산업으로 키우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 권재일 서울대 명예교수는 작년 8월부터 재단법인 한글학회 이사장으로 재직 중이다. 권 이사장은 1976년 서울대 언어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교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1994년 모교 언어학과 교수로 부임했다. 2007년 우리말글학회 회장, 2008년 겨레말큰사전 남측편찬위원장, 2009년 국립국어원 원장, 2014년 통일준비위원회 위원 등을 지냈다. 2016년부터 2021년까지는 한글학회장을 맡아왔다. '남북한의 언어학 전문용어 표준화 방안' 등을 연구해왔다.



▲ 권원정 신용보증기금 대구경북영업본부장이 7월 25일 취임했다. 권 본부장은 경북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1991년 신용보증기금에 입사해 신용보증기금, 플랫폼금융부장, 송파지점장 등을 역임했다. 권 본부장은 취임 일성으로 "경기둔화와 우려에 집중호우까지 겹치며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신속한 보증·보험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권 본부장은 대구 출신이다.



▲ 권순우 휴젤 부사장이 지난 3일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장 주재로 열린 '2023년 산업재해예방 유공자 포상' 시상식에서 고용노동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권 부사장은 최고안전책임자(CSO)로서 사업장 맞춤형 건강관리 프로그램 실시, 안전경영시스템 정착을 위한 제도 개선 활동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다양한 활동에 대해 공로를 인정받았다.



▲ 권홍사 반도문화재단 이사장이 경상북도 등을 중심으로 큰 피해를 입은 수재민을 위해 성금 1억원을 전달했다. 반도문화재단은 '문화예술발전과 문화복지증진'을 통해 기업 이윤의 사회 환원을 실천하고자 지난 2019년 설립되었으며, 지역 문화 대중화 사업뿐 아니라 국가 재난·재해 지원사업 등 체계적인 사회공헌활동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권 이사장은 "예상치 못한 폭우로 피해를 보신 수재민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과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고, 이번 반도문화재단의 성금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재민과 지역 소상공인분들께 조금이나마 힘이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 권서린 광명시 칠산중학교 학생이 회장배 제21회 전국중고등학교육상경기선수권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권서린은 17일 강원도 정선군 정선종합경기장에서 열린 대회 이틀째 여자중등부 3000m 경보에서 14분45초18로 대회신기록을 작성하며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 권영수 LG엔솔 부회장이 지난 2일 한국전지산업협회가 한국배터리산업협회로 새출발함에 따라 배터리산업협회 초대 회장에 취임했다.

안동권씨 강릉청장년회 제12회 하계 야유회 개최



사모정(思母亭)



강릉청장년회(회장 권순상)에서는 7월 16일 한다리마을 내 사모정공원에서 강릉특별자치도의회 권혁열 의장, 강릉시의회 권순민 의원, 안동권씨 강릉중흥회 권순철 회장, 안동권씨 강릉청장년회 권순상 회장 등 55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날 야유회는 개회사, 국민의례, 시조 대사공에 대한 명배, 청장년회장 인사, 종친회장 인사말, 고문 인사말, 내빈 인사말, 보학 강의, 청장년회 동향보고, 기타 등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 자리에서 권혁열 강릉중흥회장은 인사말에서 자랑스러운 것 3가지를 말씀드리겠다. 첫째 강릉청장년회가 정말 자랑스럽다. 둘째는 사모정(思母亭)은 권혁승 어른님께서 부모님에 대한 효를 생각하면서 2009년에 건립했다. 세계 효사상의 요람이자 효사

상 세계화의 발원지이다. 지난 평창 동계 올림픽 때는 어머니 길로 정해졌다. 정말 자랑스럽다. 셋째는 종친회 어른들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오늘 참석해 주셨다. 모두 건강하셔서 고맙다고 말했다. 사모정 공원은 지난 2009년 9월 11일 권혁승 백교효문화선양회 이사장이 부모님을 그리워하는 마음과 미래의 젊은이들에게 효 사상을 함양하는 정신문화 공간으로 거듭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사비로 시비 4개, 정자 1동 등을 건립하여 강릉시에 기증했다. 또 지난 4월에는 사모정공원 입구에 효 사상 함양을 위해 '세상을 다스리는 근본은 효(孝)이다' 라는 시비를 추가로 설치한 바 있다. 사모정 공원에는 권희표 시인의 '아빠 닮았대요' 작품 등의 시비가 세워져 있다. 권순상 강릉중흥회

권중도 고문 별세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권중도(權重燾, 32世, 부호장공파) 고문이 7월 15일 노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93세(1931년생). 평소 충조사상과 애국정신이 투철하여 안동권문의 화합과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컸다. 특히 외환 중에도 시조 할사 제수비를 헌성하는 등 물심양면으로 적극 협조했다. 대종회에서는 지난 정기총회 때 권중도 고문에게 100만 족친의 마음을 담아 공로패를 드린 바 있다. 권중도 고문은 6.25 참전 용사로 묘소는 충청남도 괴산군에 위치한 호국원이다. 슬하에는 1남 2녀를 두었다. 가족들은 우리 아버지에게 안동권씨 대종회는 큰 자랑이자 자부심이었다고 말하며, 고인의 유품을 정리하는 중 안동권씨중앙중흥회에서 CD(18개)로 제작한 안동권씨세보를 발견하고 대종회에 택배로 보내왔다.

권혁남 장학사, 딸 권윤아씨와 함께 유공시민 표창



딸 권윤아(왼쪽에서 두 번째)씨와 권혁남(가운데) 장학사

권혁남 대전서부교육지원청 중등교육과 장학사가 딸 권윤아씨와 함께 유성소방서로부터 생명·재산피해 예방 유공시민 표창을 받았다. 권 장학사와 딸 권윤아씨는 지난 6

월 6일 대전 유성구 전민동 공동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하자 신속한 초기 대응으로 인명 피해를 예방한 공로를 인정받아 유공시민으로 선정됐다.

안동권씨 종보 구독 및 협찬 안내

국내외에 거주하는 안동권씨 남녀 및 안동 권문으로 임직된 부(婦)는 누구나 안동권씨 대종회 회원입니다. 종보는 1974년 12월 1일 창간된 이후 50여 년 동안 선조들의 인문정신과 학문적 유산, 후학들의 지혜를 모아 매월 1일 자로 발행되고 있습니다. 종보 협찬금은 1년에 3만 원이며, 종보 발전을 위해 기금이나 광고 등으로 협찬하실 분은 대종회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족친 여러분의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 ◆ 대종회 사무처
 - ▶ 전화 번호 : 02-2695-2483~4
 - ▶ 이메일 주소 : andongkwonmun@daum.net
- ◆ 입금 계좌
 - ▶ 국민은행 : 033237-04-006941(예금주: 안동권씨 대종회)
 - ▶ 농협 : 301-0235-6546-41(예금주: 안동권씨 대종회)

안동권씨 대종회

임원회비 납부 안내

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임원 여러분께서 납부해 주시는 회비는 안동권문의 발전과 100만 족친의 화합을 위한 든든한 주춧돌입니다. 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 ◎ 임원 : 상임위원, 부회장, 이사, 종무위원
- ◆ 대종회 사무처
 - ▶ 전화번호 : 02-2695-2483~4 ▶ FAX: 02-2695-2485
- ◆ 임원회비 입금 계좌
 - ▶ 국민은행 : 033237-04-006941(예금주: 안동권씨 대종회)
 - ▶ 농협 : 301-0235-6546-41(예금주: 안동권씨 대종회)

안동권씨 대종회